

배우 김수미 “단순 기부 아닌 따뜻한 마음의 정 나누는 것”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추진... 첫 주자 나서

“남도음식은 정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내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남 고향사랑기부제가 발전하도록 힘껏 응원할게요.”

국민 배우이자 전남도 홍보대사인 김수미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첫 응원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사진〉

전남도가 향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를 추진한다고 하자 선뜻 첫 주자로 나선 것이다.

김씨는 드라마 ‘전원일기’ 일용염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요리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을 통해 전라도 엄마의 구수한 입담과 정감있는 요리 솜씨를 발휘해 젊은층에도 친숙한 이미지다.

지난 2020년 4월 전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남도 음식문화축제, 전남 방문의 해 등 전남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답례품으로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갓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체험·관광상품 등을 준비했다.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더 심플, 좋은이웃가게 캠페인 참여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지부장 배준열)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쉼더 심플(대표 오경미)과 함께 좋은이웃가게 헌당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쉼더 심플은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참여해 기업 수익금의 일부를 국내 아동권리보호사업에 후원한다.

또한 인간과 지구를 돕는 인공지능개발회사로, 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예정이다.

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경미 쉼더 심플 대표는 “좋은이웃가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카테일’ 특강



방향 맞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처장 손은이)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테일’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비교과인 ‘꽃길만 걷자’ 프로그램의 세번째 순서로 상하관 호텔경영학과 실습실에서 열린 특강에는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카테일’ 특강에 나선 호텔경영학과 장성빈 박사는 ‘알록달록한 카테일의 세계’를 주제로 클라스 종류, 도구 사용 등을 설명한 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하이볼 위스키’, ‘데킬라 선라이즈’, 민트맛 ‘그래스하피’ 등 3가지 카테일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맛보고 ‘빌드와, 웨이킹, 플로팅’ 기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현우(산업디자인학과 4년) 씨는 “카테일을 몇 번 마셔 보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직접 만들어 보기까지 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비교과프로그램에 3일째 참여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공 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은 참 보람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프라임제약,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후원금 전달



한국프라임제약(주)(회장 김대익)은 17일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지적장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우동경로당에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는 10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한국프라임제약(주) 제공〉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강진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빠이 돌아와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두뇌공조(재)	15 꾸러기 식교실(재) 45 헬로키티 과학교실(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두야 45 헬로키티 12 봄바
12	00 KBS 뉴스 12	15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덕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방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 2(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덕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내 친구 반인반어 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2023 KBS광주 신년특집 물음표? 느낌표!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45 덕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순정파이터
11	30 KBS 뉴스라인	00 스튜디오 K		
12	10 시사기획 창(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동네 한 바퀴(재)	10 금혼령(재)	40 7학년 주식회사(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킹디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EBS 특별 생방송 교육 대전환의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19:50 건축탐구-집
08:00 딩동댕 유치원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맛있는 튀르키예2 -미식 1번지, 가지탄테프〉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35 꾸러기 천사들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이 겨울엔 국물이 3부 동국장,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09:05 최고! 호기심딱지	16:15 페퍼 피그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시몽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22:45 인간과 바다
09:35 타타와 쿠마	16:40 딩동댕 유치원(재)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8일(음 12월 27일 丙子)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술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48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 보낼 수 있다. 60년생 매교 쉽지 못 하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72년생 현재 힘들더라도 참아야만 발전된 판세를 도모할 수 있다. 84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 들겠다. 96년생 신숙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5, 93</p>	<p>午</p> <p>42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환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54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66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계속 되어야 한다. 78년생 낙관하다가 큰일을 그르친다. 90년생 실의가 없다면 나설 이유도 없다. 02년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2, 57</p>
<p>丑</p> <p>37년생 한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9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61년생 분담해서 이행한다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73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85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성과를 본다. 97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려는 이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0, 70</p>	<p>未</p> <p>43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잠자코 있으면서 조처하라. 55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67년생 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79년생 실과 허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당하다. 91년생 신임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03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58</p>
<p>寅</p> <p>38년생 이면에 가려져 있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50년생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62년생 모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74년생 미봉책은 두 번 일을 하게 한다. 86년생 시기를 늦추고 자신을 낮추면 해결된다. 98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0, 72</p>	<p>申</p> <p>44년생 낱알이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56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물 뿌린다. 68년생 성사될 수 없는 일이나 허황된 생각은 버려라. 80년생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92년생 부수적인 것을 차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임하라. 04년생 말쟁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9, 54</p>
<p>卯</p> <p>39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51년생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 63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5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띠게 되느니라. 87년생 함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99년생 성극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03, 67</p>	<p>酉</p> <p>45년생 속히 진행할수록 성과가 두드러진다. 57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는 계기로 충분하다. 69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81년생 교육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리라. 93년생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05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니 뛰어 들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97</p>
<p>辰</p> <p>40년생 재고할 필요가 있느니라. 52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라. 64년생 목전의 사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76년생 가장 근원적인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88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00년생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8, 84</p>	<p>戌</p> <p>34년생 천신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조후 이니라. 46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58년생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70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8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94년생 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8, 51</p>
<p>巳</p> <p>41년생 처음에 임할 때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머지 않아 적용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53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된다. 65년생 바로 코앞에 있는 이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77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다. 89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자. 01년생 관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3, 80</p>	<p>亥</p> <p>35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국량이다. 47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59년생 지나치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1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83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95년생 유연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7, 82</p>